

“시대 속 불상은 아름다워야 한다”

서철교 ‘불상 조각전’

스님들과 불자들이 불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종교적 위엄과 장엄함일 것이다. 하지만 근육을 붙여넣고 인체비례를 도입해 좀더 아름답고 인간적인 불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부처님이 인간의 몸으로 깨달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상에서 이런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그다지 불경스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시대성의 반영과 휴머니즘적 해석을 통해 불상 조각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오고 있는 서철교 작가의 ‘불교 조각전’이 10월 31~11월 6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상 조각에 시대 속 불상의 모습을 표현한 조각 작품 11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왜 신성성과 위엄성을 강조하는 불상에 휴머니즘과 시대성을 굳이 부여하려 했을까? 이는 흥익대 조소과를 졸업한 그의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고 싶었던 그는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서씨는 불교 미술이라는 세계를 알게 됐고 불상 조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하지만 전통이론적인 불상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했고 그는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한 새로운 불상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된다.

“어머니는 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에 자주 갔고 늘 불상을 보며 자랐죠. 하지만 불교 미술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일정한 틀을 놓고 찍어내는 것이 불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시의 연인 이자 대학 동기였던 지금의 아내가 명화를 배우기 위해 동국대도 편입을 하면서 불교



‘낙산우에4’는 관세음보살상에 인체비례를 도입해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더했다.



서철교 작가의 ‘불교 조각전’이 10월 31~11월 6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장에서 작품을 손질하고 있는 서철교 작가.

불상에 휴머니즘 도입한

‘전법’ ‘초조’ ‘낙산우’ 등 조각 이미지 가미해 ‘눈길’

10월 31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서

미술의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된 거죠”

이후 서씨는 불상 조각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턱선이 두툼하고 아랫배가 충만한 불상을 그는 지양했다. 인체비례를 도입해 근육을 붙여넣고 인간적인 곡선미를 갖춘 불상 즉 신성성보다는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보통 불상이라고 하면 도상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32상 80종호를 생각하는데 이는 경전적 해석이지 특별한 법적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

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거죠. 그런데 이런 글자에 얽매다 보니 천편일률적인 모습의 작품이 나오게 된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각적으로 원만한 조각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불상 이전에 조각적 의미를 먼저 부여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죠”

이렇게 불상에 인체 비례와 구상 조각의 아름다움을 가미한 아미타상, 관세음보살상 등의 작품을 만들어냈고 2006년 첫 개인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작품이 ‘너무 사람 같다’ ‘속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작가는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물론 이런 충고들이 기본 나쁘진 않았어요.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작품이 분명했으니까요. 다만 인체와 성상을 어떻게 접목시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이런 고민 끝에 새롭게 내놓은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낙산우에’ ‘초조’ ‘전법’ ‘함마추지’ 등이다. ‘낙산우

에’는 다리를 꼬고 앉은 관세음보살상으로 우아하고도 신비로운 자태가 백미다. ‘전법’은 작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설명하는 부처님을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창조해내고 있다. 이는 부처님 당시 다양한 설법으로 포교활동을 하던 젊은 시절 부처님의 지혜와 카리스마를 표현해 냈다.

“제 의도와 기존 불상의 위엄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찾는데 7년이 걸렸어요. 물론 이 고민이 이번 전시에서 모두 해결됐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 접근을 통해 시대 속 불상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인간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금화(金華) 서철교 작가는 흥익대 미술대 조소과를 거쳐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미술 박사과정 중에 있다. 현재,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과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술공예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02)734-7555 정혜숙 기자

원담스님 극본 ‘지대방’ 재공연

11월 8일~12월 2일 대학로 극장 무대

조용한 산사는 화두를 든 스님들의 용맹정진을 위한 장소일까? 그곳에서도 밭 먹고 빨래하고 옷 기우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스님들의 삶이 이어지는 지대방이 있었다.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이 지대방에서 한번 쉬어가고 싶지 않은가?

원담 스님(수국사 주지)이 극본을 쓴 ‘지대방’이 11월 8일~12월 2일 대학로 극장 무대에 오른다. 지대방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은 극단 완자무늬가 제작하고 김태수가 연출했다.

산중의 어느 절, 겨울 안겨 동안 허운 돈조 해산 세 스님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아직은 여물지 않았지만 만만치 않은 욕심을 보이는 돈조 스님, 늦각이로 입문하였지만 구도의 치열함으로 선방에서는 물론 지대방에서조차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해산 스님, 외길을 살면서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허운 스님 등이 생활하고 있다.

깨달음을 위해 자신과의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선방과는 대조적으로 그 틀을 잠시 이용해 스스로 마음을 잡는 지대방. 이곳에서는 빨래감을 두고 아옹다옹하고, 안겨 해제 후의 계획을 말하며 티격태격하고, 심지어 안겨 해제 기념 파티를 위해 술자를 흔치려는 이질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던 중 무문관에 들어가 6년 결사를 하던 도문 스님이 6년을 며칠 앞둔 채, 스스로 결사를 풀고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정전벽력 같은 일이다. 소란스러워진 절에 도문 스님을 흠모 한다는 객승 우지 스님이 찾아와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진다.

평일 7시 30분, 토요일 4시 7시 공연. (02)765-198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원담 스님이 극본을 쓴 ‘지대방’이 11월 8일~12월 2일 대학로 극장 무대에 오른다.

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금상-김종인 ‘발원’ 선정
은상-‘다도’, ‘삼보일배’ 등

천태종 제2회 불교사진공모전 금상(상금 300만원) 수상작으로 김종인 씨의 ‘발원’이 선정됐다. 관련 시상식은 10월 24일 서울 인사동 덕일갤러리에서 열렸으며, 수상작 전시회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천태종(총무원장대행 무원 스님)은 10월 10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태종서사무소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상에 이어 은상(상금 각 200만원)에 정주호 씨의 ‘다도’와 백지아 씨의 ‘삼보일배’, 동상(상금 각 100만원)에 천영철 씨의 ‘지관스님 다비식’, 황재춘 씨의 ‘법고무’, 박영조 씨의 ‘초파일의 삼광사’를 선정했다. 가작(상금 각 30만원)은 △김혜원-안면암 일출 △최우성-극락으로 가는 길 △조인태-삼광사의 꽃 △김세은-출가 △김학



금상 수상작 김종인의 ‘발원’

수-다비장 풍경 등 5점, 장려상은 △김길호-흔적 △김용대-염원 △박정숙-귀휴 △문동민-바라춤2 △전경하-다비식 등 5점이다. 정혜숙 기자

스스로 마음을 일깨워라

템플스테이문화사업단... ‘마음 일깨우는 스마일展’

템플스테이가 미술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는 스마일展’을 개최한다. 젊은 미술가 8인이 함께하는 스마일전은 10월 31~11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가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젊은 작가들이 2달간의 워크숍과 템플스테이 과정을 거쳐 자기 성찰에 대한 소회를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다.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5~35세의 젊은 미술가들은 2

개월 간의 불교 워크숍 및 템플스테이 체험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후 작가들은 설치, 영상, 회화 등의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전했다.

작품으로는 ▷김성대의 ‘관리장성 적사 프로젝트’ ▷김소희의 ‘선_108 ▷문종선 ‘어귀남’ ▷양정욱의 ‘줄고 있는 사람도 깨달음은 있다’ ▷오태중의 ‘개불, 여백의 미1’ ▷이현진의 ‘OFF&ON’ ▷장유진의 황홀경 ▷최진연의 ‘THE FACT’ ▷민병훈의 기록사진 ‘8인의 젊은 작가 부처를 만나다’ ▷김혜경 오태현의



전시작 중 하나인 최진연의 ‘THE FACT’

영상기록 ‘젊은 작가들의 화두’ 등을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잔인한 내림’ 시사회

합천평화의 집 주최
10월 31일 인디스페이스

합천평화의집과 기록영화제작소 ‘다큐 이야기’가 주최하는 다큐멘터리 ‘잔인한 내림(遭難)’ 시사회가 10월 31일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영화 ‘잔인한 내림’은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한정순 회장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다.

핵에 대한 문제, 방사능의 유전성에 대한 문제, 원폭2세 환우들의 삶과 현실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 기록영화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원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환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음

민속죽염 23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기준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기준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파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시은품 (후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승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지혜와 공덕, 깨달음 성취하는 생산적인 도道!

불교TV 방송중

다방정도와 유심정도를 포용하는 **《임심정도 염불수행》**

정목스님 지음
변형 신국판 | 컬러 | 232쪽
13,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정경취의 깨달음 환경과 의식을 창조하는, 체험으로 증명되는 마음의 과학!

원효 대사의 임심정도 염불수행은 독창적인 정토사상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이며,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염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성취한 정목 스님은 누구든지 염불수행을 통해 안심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대승불교의 신행체계를 확립했다.

양산 정도원: T.055-375-5844,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l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전사님 저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